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친구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라
(빌립보 1:21)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헌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5 충헌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환 편집인: 노광헌 편집: 양재웅

금요집회를 통해서 빚어졌던 그릇들, 이제 다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골 3:16)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장래에 임할 천국”, “이 세상에 있는 천국”, “천국의 비밀”, “천국의 생명”, “천국의 의”, “천국에서 요구되는 것”, “천국·이·스라엘 그리고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할 것인가?” 까지 지난 몇 개월간 우리들은 금요집회를 통해서 천국에 관한 놀라운 진리들을 깨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천국을 소망하며 기다리듯이 금요집회를 통해 선포된 천국복음의 말씀을 소망하며 기다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천국복음을 깨달은 자로서 더욱 복음에 기초한 증인의 삶을 살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계속해서 선포된 금요집회를 통해 말씀으로 풍성한 귀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선포된 “의로운 길” 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 선포될 “성경을 어떻게 다하여야 할까?” 등 이번이 새롭게 시작된 금요 말씀들은 위임목사님께서 모든 성도들 중 특별히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중심으로 선포합니다. 성도들과 젊은이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부딪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명확한 응답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금요집회에 꼭 참석하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그릇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또한, 금요집회에 참석하기 전에 기도로 철저히 준비하여 정결한 마음과 열린 귀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그릇에 풍성히 채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충헌 어린이집

“그 어린이집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막 10:16)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흔히 목격되는 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담은 공간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충헌 어린이집” 이곳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공간입니다. 세상의 많은 어린이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교육방식이 아닌, 성경과 복음에만 기초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영령을 고려한 내부 시설과 교사의 자질 및 교육 프로그램 등 많은 장점이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을 향한 찬송과 말씀이 넘치는 곳이라는 사실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곳에서 어린이들은 말씀과 찬송을 배우고, 영령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특활활동(영어, 과학, 발레, 태권도, 은물, 미술)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신설했던 3세반에서부터 7세반까지의 어린이들이 교육받고 있으며, 교역자와 직원들의 자녀들도 이곳에서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은 강남구에서 시행하는 보육시설 서비스 평가에서 2002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우수 시설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안주하지 않고 2005년을 맞아 더욱더 예수님의 마음을 담은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내부 시설 개조 및 확충을 하였습니다. 계속적인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05년도
제2차
CMTC운영
단체 날

1월 16일 (오늘)

제 1강	세계선교의 흐름과 영적상황	18:10-19:00	갈릴리움
제 2강	타종교 이해 및 종교권역별 사례발표(선택강의) 정교·카톨릭 회교 힌두교 불교	19:10-20:10	나사렛을 갈릴리움 분당112호 베다니움

* 제2강 강의는 '타종교 이해'가 30분, '종교권역별 사례발표'가 30분입니다.

말씀으로 풍성한 그릇 (금요집회)

의로운 길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나니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렘 21:8)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이 어떻게 여호와를 이해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바치며 이 진리를 찾아 해매고 있다. 누구든지 인생을 살면서 자신을 향하여, 자연을 향하여, 아니 우리가 거하고 있는 우주 만물이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한지를 잠깐이라도 묻지 않는 자들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어떤 자들은 이 육방 속에 채워지는 일시적인 기쁨을 발견하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면서 살기도 한다. 그렇다면 견고한 반석은 무엇일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엡 2:20).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을 발견하고 또 이와 더불어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는 오직 바울이라는 자에게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렘 22:3),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에게 왜 인간이 존재하며 무엇을 행해야 하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해 주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인간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문제의 답을 끊임없이 찾고 있다. 많은 연구와 자료를 통해 결론에 대한 해답을 계속 찾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답 찾기는 하나님의 계시, 곧 성경을 떠나서는 분명 공허함에 빠지고 만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해답이 있을 뿐이다(딤후 3:16-17). 그러나 우리의 교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지 못하고 있다(요일 1:3). 대신에 우리는 숨겨지고 감추어진 지식을 발견하여 애쓰고, 또 종종 명한 자들이 주는 오묘한 대답에만 관심을 가지려 한다. 인간의 높은 자부심이 인간의 심오함을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논리로 정복하려 함을 원하는 것이다(렘 12:1, 7, 8).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결코 지적인 자살 행위에서 이르지 않는다. 성경을 진리의 토대로 삼고 그 위에 건축할 때, 그의 인생은 자국을 बना서 활발하게 된다(골 2:2-3). 그러나 인간의 사색에 의한 결론에 기초한 그리스도인은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 위에 세워져야 한다.

인생에 대한 전제는 아주 간단하다(요 1:1-3). 그가 믿는 모든 것 곧 인간, 악, 우주의 미래, 하나님, 그리고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이 이 한 가지 진체로부터 나와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들

에게 진리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은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다(고전 1:30-31). 이렇게 단순히 보이기까지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좁은 지혜의 확실성과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지혜가 자신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도록 기쁘게 나아 올을 수가 있다(고전 12:2-25). 그리스도인은 복음이 자신보다 더 큰 지혜에서 시작되었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하여 그는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살필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된다. 즉 누가 이 모든 것을 만들었으며, 또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여기에 있는지를 확실히 믿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길을 안에 있는 계사를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밝히게 하도록 말씀하신다.

믿음의 길은 의의 길, 은총의 길, 영원의 길이다(사 55:8-9). 그러나 인간이 성경을 철저히 깨닫지 이해할 수는 없다. 또한 이것을 기대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억지로 자기의 의지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데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다. 성경은 하나님의 무한한 계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그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 안에 인간의 죄와 그리스도도를 통해 거쳐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또 이에 관계되는 모든 원리를 담고 있다(요 5:39-40).

병든 자, 가난한 자, 중, 무식한 자, 천한 자, 어린이에게도 그리스도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고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일어난 영생의 구원은 훌륭한 종교 지도자나, 지식이나 철학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것이기도 하다(골 10:21-22). 성경은 어느 누구도 자기의 능력으로는 다 깨달을 수 없고, 구주의 열광을 대할 때까지는 진정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지혜와 지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도를 통해서 좁은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인간의 제한된 정신력을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에 비교한다면 그 간격은 뛰어넘을 수 없는 거리에 있는 제곱과도 같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 성경 말씀은 인간에게 준 하나님의 계시(사 1:1)로 모든 것들이 그의 계시 안에 암시되었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언약으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롬 15:4).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온유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도를 통해서만 의로운 길을 걸어야 할 것이다.

JESUS CHRIST GAVE HIMSELF FOR US

*“who gave Himself for us to redeem us from every lawless deed,
and to purify for Himself a people for His own possession, zealous for good deeds”
(Titus 2:14)*

Jesus Christ gave Himself for us, which means He died for us. He died on our behalf, for our sake, in our place, and as our substitute. He took our sins upon Himself, and paid the penalty for them. The verdict of sin pronounces humans guilty before God, and condemns them to eternal punishment. Jesus Christ bore the condemnation and punishment for all sin. We deserve death, but Jesus died for us. He died so that we might have eternal life. God reveals His grace to us through the death of Jesus Christ. Romans 5:8 says, “But God demonstrates His own love toward us, in that while we were yet sinners, Christ died for us.” His death for our sins brings some very wonderful results.

Jesus’ death redeems us from all weakness. We are guilty of ungodliness, worldly passion, and disobedience. As sinners, we are prideful, selfish, and complaining. We fall short of God’s glory. We cannot stop the sin that keeps us from God. Satan has kidnapped us, and Jesus is the only ransom, the one payment, that will set us free. His death redeems us from captivity, and certain death. When we believe that Jesus Christ died for us, and I mean really believe, God takes this belief and clears the debt of our sin. He gives us the freedom to identify with Christ, so that we have the opportunity to be free from sin and its penalty. Faith in Jesus Christ delivers us from eternal death. God releases us from the prison of evil, “being justified as a gift by His grace through the redemption which is in Christ Jesus”(Rm. 3:24). This grace, this righteousness, God offers to everyone. God does not discriminate. Galatians 3:13 says, “Christ redeemed us from the curse of the Law, having become a curse for us...” In Jesus Christ, we have redemption, the forgiveness of sins (see Col. 1:14).

Jesus’ death makes us His very own special people. Satan can no longer keep us as his prisoner because Jesus keeps us as His own possession. We become God’s children. This is the very reason why Jesus died. 1 Peter 2:9 says, “But you are a chosen race, a royal priesthood, a holy nation, a people for God’s own possession, so that you may proclaim the excellencies of Him who has called you out of darkness into His marvelous light.” God’s grace allows us to believe in Jesus by faith. By faith in Jesus Christ, we receive salvation. This salvation does not come from us; it is strictly a gift of God. Ephesians 2:10 says, “For we are His workmanship, created in

Christ Jesus for good works, which God prepared beforehand so that we would walk in them.” By nature, we are actually children of God’s wrath, but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we receive a new nature,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ure; the old things passed away; behold, new things have come”(2 Cor. 5:17). As a new creation, made possible through Jesus Christ’s death, we become His people.

Jesus’ death stirs us for good works. When people really grasp what Jesus Christ has done for them; they get excited about giving their life to Him. They do not spend time working on their own stuff. New life awakens them to perform God’s work. The believer works and works, doing all the good he can to reach all the people he can for the glorious work of redemption. When a believer truly understands the death of Jesus, which most people do not, their lives change. They become His possession. They cannot stand still because they are compelled to do God’s work. Matthew 5:16 says, “Let your light shine before men in such a way that they may see your good works, and glorify your Father who is in heaven.”

When people look at you, do they see the light? Titus 2:7-8 says, “in all things show yourself to be an example of good deeds, with purity in doctrine, dignified, sound in speech which is beyond reproach, so that the opponent will be put to shame, having nothing bad to say about us.” If people cannot see your light, then you do not understand the death of Christ, for if you understood your life would be changed. You would shine and share all the time. 1 Timothy 6:18 says, “Instruct them to do good, to be rich in good works, to be generous and ready to share.” You cannot just sit and keep God’s grace to yourself, nor can you live in the darkness.

Do you realize how important it is to understand the meaning and purpose of the death of Jesus Christ? Mark 16:15 says, “He who has believed and has been baptized shall be saved; but he who has disbelieved shall be condemned.” Many people claim to know Jesus, but they do not show His light. Their lives are full of questions, complaints, and selfish motives. My friend, if you really believe, if you really understand the grace of God, then you do change and become a light, for Jesus redeems you from all weakness, makes you His own, and stirs you to do good work. 

다음 주일 설교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오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딤후 2:14)



김성관 목사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에, 우리의 대리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판결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선고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형벌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의 저주와 형벌을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죽임을 당해야 할 사람들은 우리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스스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의 은혜를 계시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듯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매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시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모두를 연합함으로부터 구원합니다. 우리는 경건하지 못하고 세상을 열렬히 사랑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합니다. 죄인인 우리들은 교만하고 이기적이며 늘 불평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건만 우리는 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몸값을 완전하게 지불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 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사탄의 울무와 정해져 있는 저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구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진리를 정말로 믿을 때, 하나님은 이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의 빛을 청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결과 우리는 죄와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이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의 감옥으로부터 우리를 풀어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롬 3:24). 하나님은 이 은혜와 의로움을 모든 사람들에게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습니다(골 1:14 참조).

친 백성이 되게 하려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자신의 포로로 가두어 두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만들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본질상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비로써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됩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힘쓰도록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정말로 깨닫게 되면 사람들은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일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새로운 생명은 그들을 일깨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듭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끊임없이 일합니다. 구원이라는 영광스러운 일을 위하여 또 가능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기 위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합니다. 신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참으로 이해하게 되면, 반드시 삶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참으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을 참으로 이해하는 신자는 예수님의 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강권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내고 있는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빛을 발견할까요? 디도서 2장 7, 8절은 말합니다. “넙사에 네 자신으로 선한 일의 본을 보여 교훈의 부패지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론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만일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빛을 볼 수 없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참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참으로 이해한다면 여러분의 삶도 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삶은 빛을 발하며 복음을 나누는 삶이 되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은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참으로 깨달았다면,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혼자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으며 어둠 가운데 살 수도 없습니다.

빛의 복음을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은 말합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예수님의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 의심과 불평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참으로 주님을 믿는다면, 만일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변화하여 빛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허물로부터 구원하여 자기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여러분을 감동하시어 선을 행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

장로칼럼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를 기록하는 2005년의 강남구 역삼동

이형수 (전도위원장)



풍성한 2004년 12월을 보내고

우리 교회는 매년 12월을 풍성하게 보냅니다. 우리는 조용하게 그러나 참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며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지난 12월을 돌아볼 때 성탄과 관련된 메시지가 주일예배, 주일저녁 찬양예배, 수요일예배에 연속으로 이어졌고, 21일 저녁에는 제1교육위원회의 9개 교회학교의 어린이들과 사랑부, 에바다부 학생들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절서 있는 가운데 진행된 이 찬양예배에서 어린이들이 참으로 잘 준비한 성탄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기뻐하며 감사를 나누었습니다. 24일 금요집회에서는 고대청원찬양대와 오케스트라가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공연하여 온 교인이 큰 은혜에 잠겼습니다. 성실한 마음과 공교함이 (시 78:52) 잘 배어나오는 찬양은 독창자나 합창자 모두가 어휘 하나 하나까지 정확하고 진지하게 전달하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들의 얼굴에서 묻어나는 감사와 기쁨이 온 회중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그것은 12월 들어 연속적인 성탄에 관한 메시지의 내용인 그리스도 탄생의 예언과 의미와 성취를 그대로 담고 있어서 마치 말씀과 찬양을 씨줄과 날줄로 위에 적조된 아름다운 비단을 펼쳐놓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교회가 그 동안 '복음 전리' 하나만을 붙잡고 달려온 결과가 그대로 분출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을 통해서 고백적으로 드러난 진정한 영광과 평화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제 온 교회는 자랑스런 우리의 아들, 딸들과 함께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기대하며 다시 한 번 영광의 찬양을 준비할 것입니다. 25일 성탄절은 성탄의 기쁨으로 달리는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무릎 꿇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정배한 시간이었습니다. 12월의 이 모든 성탄 메시지는 결국 크리스마스의 경이로움으로 모아졌습니다. 전 우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성취된 성자 예수님의 탄생의 놀라움이 우리의 가슴 속에 한 점으로 집약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한 얼굴로 메리 크리스마스로 성탄 인사를 하며 새로 오는 한 해는 '주님의 경이로움을 증거 하는 해'로 살 것을 다짐하며 풍성한 12월을 보냈습니다.

새해의 문턱에서

새해의 전날인 12월 31일 금요집회는 소년부에서 소망부에 이르기까지 13개 중창단의 찬양으로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중창단의 찬양을 속으로 따라하며 온 교회는 어찌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이 변함없는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 찬미하였습니다. 2005년 1월 1일, 부처런히 달려온 교우들은 또 새로운 한 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디저네 예수님이 나를 이끌면 이디저네'를 주님의 가슴 속에 한 점으로 집약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한 얼굴로 메리 크리스마스로 성탄 인사를 하며 새로 오는 한 해는 '주님의 경이로움을 증거 하는 해'로 살 것을 다짐하며 풍성한 12월을 보냈습니다.

2005년도의 복음 증거

올바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늘 전도, 선교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은 초대교회 이래로 2000년 교회사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설교가 항상 선교, 전도, 증인의 삶 등으로 맺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교회는 연말에 교역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을 중심으로 2005년도의 선교와 전도에 관한 설교회를 실시하여 교회 앞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미 4년차로 접어들어 전 교인의 단기 선교 사역은 금년에는 2500명 이상이라는 목표를 세웠고, 전도 사역에서는 전교

인이 1년에 한 사람이 한 명씩 전도하여 교회에 등록시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그 동안의 단기선교의 결과는 자연스럽게 이미 6개국에 13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직접전도를 지향하면서 그 동안의 간접전도를 모두 직접전도로 바꾸어 왔습니다. 지난해로 지인 위주의 모든 간접전도를 마감하면서 이제 온 교회가 직접전도의 길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각 구역에 연령별로 구성된 7개 전도회를 두어 교회적으로 총 126개 전도회가 잘 조직되어서 활동하여 왔지만 직접전도보다는 주로 간접전도의 형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금년부터는 모든 전도회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전도회로 탈바꿈하여 직접전도 활동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전도회의 효과적인 전도활동을 위하여 전도대상 지역은 교회에서 도보로 5-20분 거리에 갈 수 있는 지역을 교회주변으로 정하고 그 지역을 18개 구역으로 나누어 각 구역 내의 7개 전도회가 집중적으로 전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도 방식도 노방전도가 아니고 구역 내의 모든 주택과 업소를 한 집도 빠짐없이 찾아가서 상담과 얼굴을 마주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전하는 축조전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교회주변 전도의 좋은 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믿기로 작정만 한다면 교회로 인도하기가 쉽고, 5-20분 거리에 있기에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는 주일, 수요일, 금요일을 택하여 언제든지 가서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고, 또한 교회주변의 사람들과 서로 인사하는 관계가 형성되면 그들을 관계 전도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고, 전도활동들이 각자의 전도대상을 알기에 피차 기도해 줄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 두 개의 초점

또한 우리는 전도하면서 반드시 복음적인 메시지를 전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들이 거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돌아서서 한마디의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등의 복음적인 메시지가 그들에게 쌓일 때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어느 날 그들 심령에 큰 변화의 일으킬 것을 믿기에 우리는 다시 도우려고 미련스런 위 보이기는 이 전도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회주변 전도를 담대하게, 열심히, 꾸준히한다면 교회주변은 모두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이 교회주변을 오가면서를 생각하면 "이 주변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라는 부담감을 해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미시적이면서도 거시적인 비전을 가지고 복음전도 사역을 감당할 각오입니다. 즉 오늘날은 유대와 사마리아(교회주변 전도, 국내전도), 내일은 땅 끝(선교)의 두 개의 초점을 가지고 쉼 없이 복음전도에 매진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는 2005년

우리는 지난 12월 금요집회에서 막바지로 달려가는 '천국 복음' 시간에 모든 세 계 역사는 하나님 나라에서 남기지 않을 것이고 복음전도의 역사가만 남을 것임을 밝혔습니다. 즉 모든 세계사는 선교중지로 수렴될 줄만 의의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행하는 단기선교는 그 나라에 길이 남을 선교역사를 쓰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하는 이 교회주변 전도는 2005년의 서를 강남구 역삼동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쓰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년 우리의 목숨을 연장시키고 새로운 해를 허락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여건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이러한 복음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으로 살라는 뜻일 것입니다. 복음전도의 일은 오로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일임을 생각할 때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사역의 현장에 동참시키며 주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적인 일을 주님 곁에서 지켜보라고 하는 일입니다. 이는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한 초대입니다. 이 초대에 반응하여 우리들이 진정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전도의 현장을 열방과 교회주변으로 나갈 때 감사와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복음전도 사역이 우리 자신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힘 있는 복음전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선교 지역에서, 이 교회주변에서, 교외교회까지 그했던 길이 실현(산호스)이 일어나고(행 17:1-15, 19:23) 복음중지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눅 24:3, 19:14-19), 큰 기쁨(행 8:8)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사죄 책임 및 국가와 사회의 모든 문제의 진정한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말없이 보여주는 2005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에베 메시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 6:1)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주님을 경배할 수 없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와 말씀을 들으며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광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호 4:1). 참된 예배가 사라졌다. 외식적인 예배만 있고 진정한 예배를 위한 진실이 없다. 그러므로 이 땅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호세아에 예언한 후 8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호 8:37). 우리 천국교회와 현실은 아닌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비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히 영원하게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나"(시 103:17).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자비를 깨닫게 된다. 자비는 우리의 가슴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아는 데서 온다. 우리가 흠뻑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알게 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게 된다.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쟁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파를 뒤대일지라"(호 4:2).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며, 하나님의 자비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 "독사의 자식들이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

함이라"(마 12:34).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직함을 받으리라"(마 12:37).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등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행함과 너희 입의 부끄러움 말미라"(골 3:8).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있어야 한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것이 씻겨야 한다. "나같은 죄인인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출타한 연옥"(전 189:3). 여호와께로 돌아가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행동을 하게 된다.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쟁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파를 뒤대일지라"(호 4:2). "살인하지 말지니라"(출 20:13). "도적질하지 말지니라"(출 20:15). "간음하지 말지니라"(출 20:14).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가운데 다 넣었느니라"(출 20:13). 예수님께서 산상성경을 통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 5:48)고 명하신다. 이처럼 여호와를 떠날 말씀이 없을 때 개인 가정, 사회, 나라, 교회는 파멸하게 된다. 그러나 내 가슴을 치고 회개할 때 생명은 내재하신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깨닫게 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므로 내가 고쳐서 찢을 것을 치셨으니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호 6:1). "여호와께서 이를 우리에게 우리를 살리시며 제 삼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라니 우리가 그 안에서 살리라"(호 6:2). 정말로 여호와를 사랑하는가? 자손들을 내세우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의 말을 합쳐 여호와의 일을 그 나소심은 새벽 빛같이 일컫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하고라"(호 6:3). 진정으로 십자가 앞에 나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단순한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고 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정 행복한 사람이 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생명이 우리의 삶을 조망하신다.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사람은 피조물이 된다. "주여 이 놀라운 축복을 주소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자녀로 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성취하기 위하여

원한 신학교 내에 있는 외국인 중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주님을 만나 거듭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의 소명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신학자의 교육과 교회의 양육을 통하여

현진인 사역자로 세워나가고자 합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난 무슬림 여인의 고백

1.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과 동기



권노자

저는 권노자입니다. 2국에서 왔습니다. 2국은 무슬림 국가이며 우리 가정도 무슬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 땅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주님의 은혜로 교회가 다니면서 외신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 온 첫날 예배 중에 하늘에서 무언가가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려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제 머리 속에는 역시 "나는 무슬림이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

다. 저는 몇 개월 동안 교회에 다녔지만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무슬림입니다. 이 한국 땅에 와서 예수님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니면 이슬람이 진실인지 저에게 알려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때 하나님은 저에게 진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주일에 교회 와서 선생님께 "저는 너무 힘들고 마음이 아픕니다. 무엇이 무었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때 한 선생님이 "권자, 예수님을 믿으라. 우리가 지금 바로 너를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 네가 이야기 하는 것이 해결될 것 같을 뿐, 아무도 너를 도와줄 수 없을 거야."라고 말하셨습니다. 그 때 저는 선생님과 같이 열정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니 마음이 좋았습니다. 행복하게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하나님이 저를 한국 땅에 부르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 신학을 공부하며 복음증거자가 되기로 결심한 이유

저의 남편은 복신자입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이면 남편이 교회를 못 가게 해서 항상 도망 나다니고 교회에 왔습니다. 저는 남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예수님과 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며 이혼하고 싶다는 말을 해서 3개월을 따로 떨어져 지냈고, 그 동안 저는 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어느 날은 기도하며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지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혼하지 말라고 하시는 데 남편은 이혼하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절히 기도하던 저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라야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한다. 너는 말씀대로 살라라."라고 하시며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고 하나님은 나의 남편마저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남편이 주님을 믿고 천국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저는 다시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라고 말하자 하나님은 저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음성을 들려 주셨습니다. "나는 무슬림이었으니 많은 것을 배워야 된다. 그 후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하나님, 저는 지금 일해서 돈을 벌어서 미국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겠습니까."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년이 그 때 저는 한국어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제목을 가지고 1년11개월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의 기도대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제가 공부를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아셨을까? 그 때 저는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무지한 저는 그때까지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까.

3.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한다면 어떻게 전할 것인가?

저는 제가 복음을 깨닫도록 은혜를 주셨던 예수님을 그대로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이야기하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또 삼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축을 수밖에 없는 것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써 천국에 갈 수 있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생명을 받을 수 있고 오직 삼일째로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위해서 구체적인 기도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삼일째로 하나님의 뜻과 힘으로 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예수님뿐입니다.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새가족 양육을 받으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

"최회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시 119:136).

내가 주님과 상관없이 살았을 때 내 마음에서 눈물이 시냇물같이 흘렀으나 내가 주님을 알게 되었을 때 진정한 그 분만이 나의 삶의 의지가 되었고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작년에 저에게 큰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닥쳐오니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감당해야 할 고난에 전혀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제가 의지할 곳은 오직 주님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집 뒤에 있는 교회에 가서 혼자 울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주님마저도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넘어 공포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래도 주님께 울며 매달렸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막을 오가며 왔던 중원교회에 생각나 따라 함께 이곳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 말할 수 없는 위안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마음에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 때 목사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나 같이 보잘 것 없는 죄인을 위해 그 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에 눈물이 주줄할 수 없이 흘렸습니다. 아들이 옆에 있는데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이후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주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내가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빼앗겼지만 그것을 통해 나를 불러주시는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또한 새가족 양육부에서 공부하면서 말씀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을 통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알 수 있고, 주님이 말씀을 통해 나를 깨우쳐 주시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깨닫고 다른 사람들도 주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정기순(새가족 양육부)

귀한 그릇이 되도록

나는 그동안 불평만을 늘어놓는 사람이었다. 내가 가진 것에는 감사할 줄 모르고 그저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한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 그런 나약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 나왔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베푸셨는지 알 수 없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학교도 주셨다. 눈에 보이지 않는 커다란 사랑까지. 이런 한 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길 원한다.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진로문제도 부모님과 의견이 맞지 않았다. 평소 디자인에 관심이 많던 나는 미대로 진학하길 원하였고, 부모님께서는 경제적인 사정으로 일반 대학을 준비하며 공부하기를 원하셨다. 나름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서 나의 비전을 열심히 준비해 온 터라 막상 내 뜻대로 되지 않자 너무나 속상하였다. 정말 그때에는 하나님님이 많이 원망스러웠다. 그러나 요즘 들어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다는 생각이 든다. 나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드린 기도, 분명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계획하신 일이 있으실 텐데 그것에 매달리지 않았던 나의 모습,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얼마나 나약하길 보였을까?

새해 첫 예배 전 설교로 이런 나를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신이 귀히 쓰이기 원하는 사람이 약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이 하면 주님께서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신다고 약속하셨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모든 사람은 깨끗이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 정말 말할 수 없이 감사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님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할 것은 믿는 것, 그리고 순종이다. 나의 오만한 생각과 이기적인 욕심으로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될 수가 없을 것 같다.

올 한 해 고3으로서 힘든 날이 많았지만 나의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믿고 순종하며 주님 주신 능력으로 공부하면서 주님 쓰시기에 귀한 그릇으로 준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김진희(고등부)

정말 많은 회개를 했다!

새해 첫 날 일주일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라는 설교를 하셨다. 나는 설교 제목을 그냥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사람이 되자'라고만 생각했는데, 막상 설교를 듣고 보니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하나님께 쓰이는 그릇이 되기에는 참 힘든 시점이 있지만 끝에는 하나님님이 주시는 행복, 기쁨 등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교회에서는 기도도 열심히, 찬송도 열심히,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 교회와 세상을 떠나는 순간 정반대의 사람이 된다. 이런 나를 보면서 '내가 왜 이러지?'라는 생각까지 한다. 새해 첫 날에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많은 회개를 했다. 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다짐을 했다. 어리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됩시다!



차병서(중등2부)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 이런 교회 안에는 많은 그릇들이 있는데 귀하게 쓰이는 그릇들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그릇들도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나는 어떤 그릇이 될까? 우리는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은 저극 정성으로 돌보지만 우리가 천하게 여기는 것들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런데 아무리 천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해도 깨끗이 하고 귀하다고 여기면 귀한 것이 아닐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과 승리의 향기가 나는 그릇이라고 한다. 어떻게 주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그 위대하심을 전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그 승리의 향기가 어떤 향인지는 몰라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열심히 믿다 보면 생길 것이라 생각이 든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 죽으셨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 그했다는 것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피로써 귀하게 쓰이는 그릇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믿음으로 몸에서 승리의 향기가 나는 것인데 다 행동으로 실행하지는 잘 못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과 예수님께 들모가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인지 이번 예배에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 많은 것을 얻었다.



최소연(중등2부)

금요집회 '천국복음' 메시지를 듣고

참된 안식

예전에 히브리서를 읽다가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히 4:10)는 말씀에 밀줄을 그었다. 앞뒤 문맥을 통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쳤을 때 들어가게 될 천국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뜻인지는 정확히 몰랐다. 그런데 이번 금요메시지 천국복음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다.

금요집회를 통해 배운 천국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주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자가 맛볼 수 있는 곳이다.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히 11:1a). 스데반 집사는 믿음으로 천국을 보고 그릇을 소유하였고,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한 자는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고 실제로 사자 굴에서도 안전했다. "꼭 못하는 것들의 증거나"(히 11:1b).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나고 50년째 맞이하는 희년에 땅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회복되고 종들이 해방되는 회복이 율월절 50일 후에 있는 오순절에 성령께서 천국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옴의 회개가 이해가 된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습더니 이제 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골 4:25).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벧후 1:4).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골 2:2), 오묘한 일, 나타난 일(신 29:29), 그리스도의 비밀(엡 3:4). 이 비밀이 안개처럼 뿌옇게 보이기만 하면 내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 것처럼 또렷하게 보인다. 나도 이제는 안식 가운데 이 비밀을 간직했던 이사와의 고백을 할 수 있다. "나를 매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 뱀을 피하리니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게서 나를 도우시므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끄러움같이 굳게 하였은대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사 50:6-7).

함대원(청년1부)

교회탐방 49 음영실

주님의 눈과 귀가 되어

본당 제일 복대기에 위치한 음영실에는 늘 바쁘게 움직이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매 예배 때마다 필요한 음향을 조작하여 영성을 증대 송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그들은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 잘 전달하기 위해 자신의 눈과 귀를 주님의 신안 도구로 온전히 드러내만 합니다. 성도들 눈에 띄이지는 않지만 그들의 헌신이 있기에 우리는 주님께 더 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 봅시다.

음영실에 대하여 소개해 주세요.

음영실은 크게 구조정실, 녹음 스튜디오, 장비관리실, 수화예배실, 자료관리실, 시설 준비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향 파트에서 콘솔 조작과 각종 마이킹, 테이프 녹음 및 복사. 영상 파트에서는 스위처, 편집, 카메라 총괄 등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20여 명의 카메라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최준호(안수길사)

음향 파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나요?

교회 각 부서의 작은 방들의 마이크에서부터 본당의 모든 소리를 조절하는 콘솔(예배 때마다 모든 소리를 모으는 장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음향을 담당하여 각 예배 때마다 성도들께 은혜의 말씀을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돕고 있습니다. 노인기(음향담당)

영상 파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나요?

매 예배 때마다 예배를 중계합니다. 여러 대의 카메라 중 가장 좋은 화면을 고르는 스위처를 조절하여 각 예배 헌서에 맞게 화면을 구성해 송출함으로써 성도들의 예배를 돕고 있습니다. 이강기(영상담당)

지난 해 음영실의 리모델링 작업을 통해 어떤 점이 보완되었나요?

지난 2004년도 6월 17일부터 9월 17일까지 3개월간에 걸쳐 전체 음향 시스템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교체하였습니다. 콘솔이 어원화되었고 마이크가 많아져 더 생동감 있는 찬양을 듣게 되었고, 예배당의 어느 곳에서나 같은 음질의 소리를 듣게 되어 성도들이 동일한 은혜를 받으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준호(안수길사)

교회 음영실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부족한 저를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음영실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는 순종할 때 세밀한 부분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준호(안수길사)

교회에서 일하면서 제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고, 그런데도 부족한 저를 주님께서 쓰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김명화(음향)

늘 예배를 돕는 자로 서야 하기 때문에 항상 긴장해야 하지만 내용이 같은 설교 중에도



그때그때 주시는 각별한 은혜가 있어 도전을 받습니다. 노인기(음향)

모태신앙이었던 주님께 대해 잘 모르면서 지냈는데, 교회에서 일하면서 말씀을 통해 주님께 대해 조금씩 알게 되어 기쁩니다. 이강기(영상)

교회에서 일하면서 얼굴이 아주 밝아졌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더군요. 저도 때때로 시업에 들 때도 있지만 예배의 말씀을 통해 융단받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김득수(음향)

예배다부서서 수화로 예배 드리는 분들을 볼 때 우리가 소리로 그들을 도울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의 예배를 아름답게 받으시겠구나 하는 감동이 있습니다. 이강진(음향)

매일 아침 음영실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신홍문(영상)

성도들에 부탁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세요?

매 예배 때마다 오케스트라의 악기 하나하나에 마이크를 다는 등 경건한 예배 공간에 우리 직원들이 음향설치 위해 왔다갔다하게 되어 성도들께 죄송하지만 예배를 돕는 자로서 더 좋은 예배를 위해 저희들이 노력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강진(음향)

어느 누구보다 더 좋은 음향과 음향을 연주하고 싶은 사람은 저희들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저희들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김득수(음향)

본당 뒷정에서는 예배 드리는 모습을 안는데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날씨의 영향이나 특정한 일 때문에 예배 때 빈 자리가 많은 것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더 안타까워하시겠지요. 신홍문(영상)

(편집실)

다음 주일 찬송

42장 영화로신 주 예수님

이 찬송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갈보리산이 예수님으로 인해 영광스럽게 되었고 복된 갈보리산이 되었다는 것으로 그 갈보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다. 달우드 목사(W.M K.Darwood)가 1874년경에 작사하였고, 존 스웨니(John R Sweney)가 작곡했다.

1절 원문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 "갈보리산 벰라에서 내 구주 죽으셨네 내 주가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 그곳이라 날 위해 주가 피 흘리신 곳이 십자가 위요 기거시 내 용서 값없이 얻었네."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갈보리 언덕을 생각하자. 우리 찬송은 그 영광에 비하여 우리의 모든 영광은 분토와 같다는 것이다.

2절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갈라짐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찬양한다.

3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그피가 우리 영혼을 구속하는 은혜 주심을 찬양한다.

4절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을 주님께 드림을 고백한다.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이 후렴을 통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구속하는 은혜가 있다.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영화로운 주님을 찬양하는 찬현의 성도들이 되자.

(찬양위원회)

새 가 · 목 · 을 · 환 · 영 · 합 · 니 · 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98	시원파	19	외선부 배전희(교)	116	최정희	12	청년1부 한영준(1)	134	정삼화	5	청년2부 박옥현(5)
99	정종희	19	청년1부	117	이미림	19	대학부 홍성진(15)	135	박은나	19	고등부
100	김영모	19	청년1부 심정혜(18)	118	전진솔	5	청년2부 한희화(8)	136	오재진	19	고등부
101	김성환	19	청년1부 이복순(10)	119	고성배	19	사랑부 전현진(5)	137	변신미	19	대학부 구원철(1)
102	유원숙	6	장년2부 김순재(4)	120	김진호	19	사랑부 전현진(5)	138	김경란	16	장년3부 천명식(18)
103	조현석	9	청년2부 주순혜(2)	121	김종수	5	장년1부 오은실(13)	139	김시영	19	고등부 김지혜(4)
104	정성운	19	청년1부 권삼조(7)	122	임은정	13	청년1부 김은영(13)	140	김영화	16	소망부 강상재(14)
105	최혜란	19	대학부 이만희(2)	123	박동진	1	청년1부 박용규(2)	141	강봉철	2	청년1부 함진(1)
106	문상재	19	청년1부 황대원(19)	124	윤이만	19	청년1부 김연홍(8)	142	황희란	4	장년1부 황경숙(2)
107	김정호	19	대학부 황세연(10)	125	박보현	19	대학부 김두리(17)	143	전찬진	19	대학부 김재현(4)
108	정영호	8	장년1부 하은영(10)	126	정주송	19	청년1부 안정선(12)	144	권영숙	16	장년1부 권연숙(4)
109	임수미	19	청년1부 오덕수(8)	127	최길영	9	청년2부 최계영(1)	145	정현희	13	대학부 이재현(19)
110	노은철	19	중등3부 강국영(1)	128	이선서	19	중등3부 정옥영(10)	146	신정섭	3	대학부 김형규(3)
111	김연하	9	청년2부 김중성(4)	129	김재화	15	청년1부 김현재(10)	147	최창진	19	대학부 전선영(14)
112	최현기	19	중등3부	130	이병민	19	중등2부 이재숙(2)	148	유대진	19	대학부 박희(4)
113	전옥석	2	장년1부 정연준(2)	131	이승진	17	청년1부 정성영(1)	149	유진성	19	대학부 이신화(5)
114	오혜영	19	청년1부	132	송철환	19	고등부 오현영(10)	150	정동식	19	대학부 백상원(7)
115	도태록	19	청년1부	133	고재홍	19	고등부 오현영(10)	151	비철호	4	대학부 황세연(10)

* 송현교회와 한 가목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목 등록표에 오시기 바랍니다.*

